지표로 보는 이슈
제35호 | 2015년 10월 13일
발행처 | 국회입법조사처
발행인 | 임성호
www.nars.go.kr

지표로 보는 이슈

소득양극화 추이와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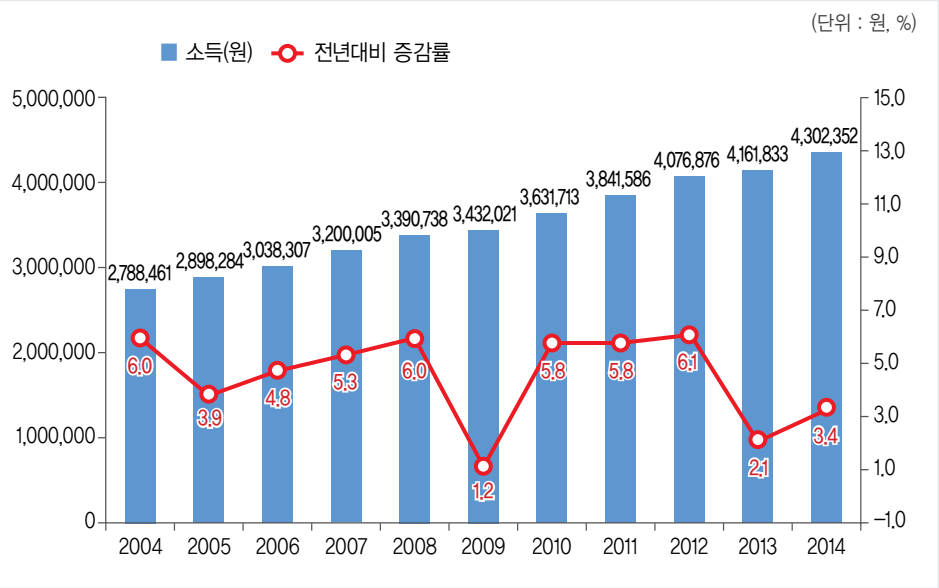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014년 4,302,352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- 그러나 소득 상위 10%와 하위 10% 간의 월평균 소득격차는 2014년 기준으로 8,639,589원에 이르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, 상대적빈곤율 또한 17.9%로 높아졌음
- 소득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

김민창 (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, 경제학박사)
02-788-4571, mckim0824@assembly.go.kr
발간등록번호 31-9735023-001268-14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소득양극화 추이

가구 월평균소득 현황 전국 2인 이상, 전체가구 명목소득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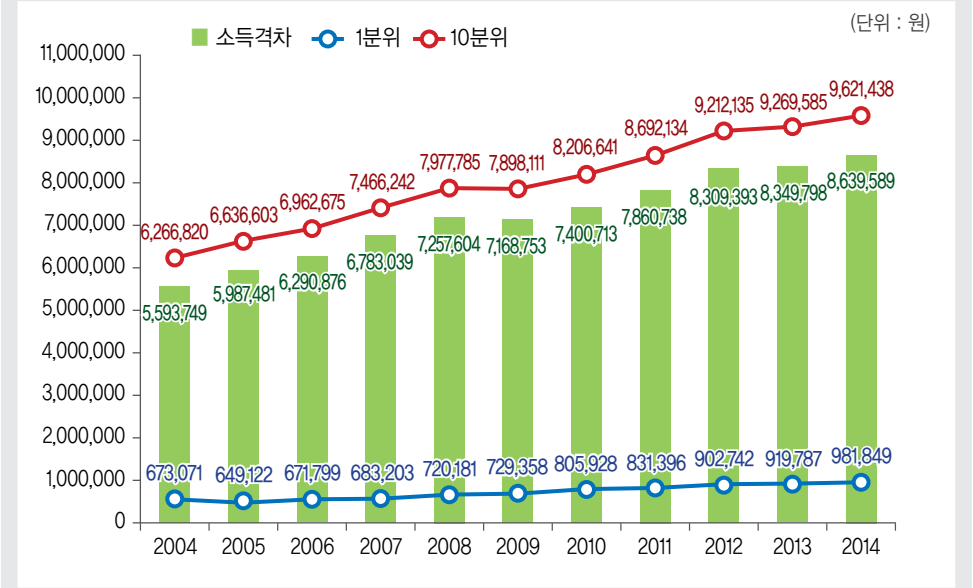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전체 가구란 가구주(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)를 기준으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를 모두 포함한 것임

2) 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임

자료 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각년도

상/하위 소득 격차 추이 소득 1분위 및 10분위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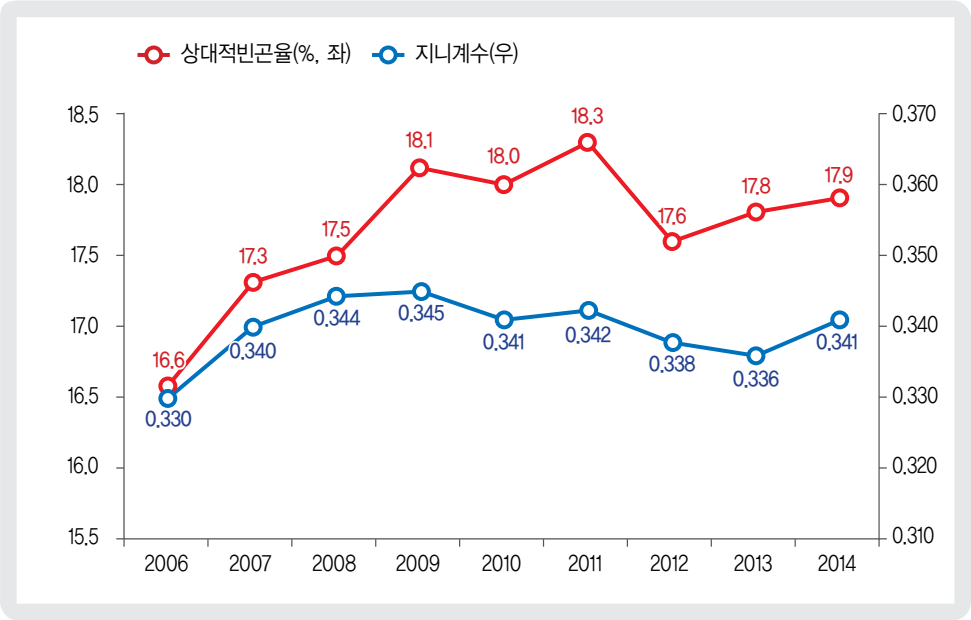
주 : 1) 소득 1분위는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10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것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이며, 소득 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을 나타냄

자료 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각년도

- 2014년 우리나라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,302,352원으로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1,513,891원 증가하였음
  - 2004년 2,788,461원이었던 가구 월평균소득은 10년 간 연평균 4.4% 증가하였음
  - 가구 월평균소득은 국제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1.2% 증가에 그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대비 4~6% 증가하였음

- 2014년 현재 소득 10분위(상위 10%)의 월평균소득은 9,621,438원으로 소득 1분위(하위 10%)의 평균소득 981,849원에 비해 8,639,589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  - 소득 10분위의 평균소득은 2004년 6,266,820원에서 2014년 9,621,438원으로 3,354,618원 증가한 반면, 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은 673,071원에서 981,849원으로 308,778원 증가하는데 그쳤음
  - 이에 따라 2004년 5,593,749원이었던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의 소득격차는 2014년 8,639,589원으로 확대되었음

소득분배지표



주 : 1) 상대적빈곤율(%)은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(중위소득)의 50% 미만의 인구비율을 나타냄
2)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

자료 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 각년도

- 중위소득 50% 미만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은 2014년 17.9%(2014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983,323원 미만 소득의 인구가 17.9%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)로 2006년 16.6%에 비해 1.3%p 증가하였음
-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14년 현재 0.341로 2006년 0.330에 비해 높아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

시사점

- 글로벌 추이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·분석할 때 보다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, 지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을 부인할 수 없음
  -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,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의 평균 소득격차는 2014년 기준으로 8,639,589원에 이르고 있으며, 상대적빈곤율 또한 17.9%로 높아져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음
-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,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  -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음
- 따라서 저소득층 소득증가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·조세·재정 등의 분야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관련 통계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://kosis.kr

지표로 보는 이슈는
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
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·정책적 개선방안 등
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
발간되고 있습니다.

www.nars.go.kr
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(우) 150-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(국회입법조사처) Tel. (02)788-4510(代) www.nars.go.kr
ISSN 2383-563X